

美박물관, 티베트 법당사원 '승고함' 재현

뉴욕 루빈 박물관, 10월 22일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 개설

미국 금융의 도시 뉴욕에서 티베트 불교 미술을 감상하며 명상도 할 수 있는 상설관이 개설됐다.

미술 전문지 'Hyperallergic'는 10월 23일 "뉴욕 첼시(Chelsea)에 있는 루빈(Rubin)박물관이 22일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을 개설하고, 짧게나마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해 화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상설관은 사원 법당을 옮겨 놓은 듯 빛의 농담을 조절해 승고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빛의 농담으로 창조된 '어둠과 밝음'은 사원 건축에서나 사용되는 원목과 현대적 건축자재인 투명한 대리석 판석의 간극을 절묘하게 이어주며, 관람객의 영성을 자극했다.

루빈박물관이 티베트 관련 전시를 처음 기획한 것은 2010년이다. 당시 스미스소니언연구소 부설 아서 섉클러(Arthur M. Sackler) 화랑이 뉴욕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해 금융권 대출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획전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1회로 끝났다.

"상설관 개설은 크라우드펀딩으로 가능했다"고 밝힌 에블린 칸터(Evelyn Kanter) 수석큐레이터는 "뉴욕 시민들이 티베트 불교를 알고자 한다는 판단에서 박물관이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해 지금의 상설관을 개설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바람으로 '있는 그대로'의 티베트 불교를 보여주자는 데 초점을 맞춰 전시실을 꾸몄다"고 말했다.

'Hyperallergic'에 따르면, 루빈박물관의 티베트 불교 상설관은 여느 전시실과는 사뭇 다르다. 유물을 전시한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원 법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또한 유물 면면도 남다르다. 18세기 티베트 스님들이 지니고 다녔던 청색 실코 수건이며, 19세기 사원에서 사용했던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의식용 북까지 관람객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유물들이 전시됐다.

법당 사원 그대로 옮긴 듯

티베트 관련 전시 '첫 시도'

유물·명상의자 등 전시

"불교 전시, 미국 전역서 계획"

"사양인에게 티베트 불교는 '분노와 자비'라는 두 글자로 함축된다"고 주목한 에블린 칸터(Evelyn Kanter) 수석큐레이터는 "유물은 이 두 개의 코드를 맞춰 전시했고, 그것을 보는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명상 의자에 앉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상설관이 단지 유물을 보는 공간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상설관 초입에 들어선 관람객은 먼저 버터 램프의 희미한 빛을 보게 된다. 성숙(聖俗)의 문지방인 셈이다. 그리고 관람객은 붉은 색과 금색의 티베트 불교 특



뉴욕 첼시(Chelsea)에 있는 루빈(Rubin)박물관이 10월 22일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을 개설했다.

유의 탕카를 보며 자신의 영성을 일깨운다. 이때쯤이면 불상과 불단의 장엄물과 조우한다. 불단 앞으로 3개의 명상 의자를 놓은 것은 순간 일어날 승고미를 추스르며, 짧은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도에서다.

한편 루빈박물관은 상설관 옆으로 네발머스탱(Mustang) 지역에 있는 외진 절벽 사면을 담은

가장 아로슬라프(Jaroslav P.)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그 맞은편으로는 존 모나코(John Monaco) 작가의 작품 '오리엔탈 의 빛'을 설치했다.

"달라이 라마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 컬럼비아대 명예교수가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25명'에 매년 선정되고 있다"고 전제한 'Hyperallergic'는 "이는 미국에서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루빈박물관이 티베트 불교미술 상설관을 기획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했고 그 역할에 기대를 거는 까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Hyperallergic'는 "로스앤젤레스 시립미술관(LACMA), 아시아미술박물관(Asian Art Museum), 노턴사이먼박물관(Norton Simon Museum), 태평양아시아박물관(Pacific Asian Museum), 바우어스박물관(Bowers Museum), 게티센터박물관(Getty Center Museum) 등에서도 불교 관련 기획적인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내 우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불교 관련 기획전을 전개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불교 열풍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마크 주커버그, 불상 앞에서 '기도'

중국 다옌 탑 방문... 10월 27일 페이스북에 사진 게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가 불상 앞에서 기도 중인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중국 시안에 위치한 다옌 탑(Wild Goose Pagoda) 불상 앞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10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에 "공개모션 홍보차 아시아 지역을 방문 중이다."

주커버그는 "다옌 탑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내 가족, 세계인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했다"며 "불자인 내 아내 프리실라 찬(Priscilla Chan)이 나에게 참배를 제안했다. 불교는 매우 경이로운 종교이자 철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커버그는 "나는 불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으며,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자인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경영철학에 불교 사상을 담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불교전문지 'Rion's Roar'는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불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페이스북은 미얀마 종교 갈등을 제어하기 위해 불교적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의 50년 간 군사독재정권이 종결되고 민주화 시대를 맞이한 후, 최근 10년간 미얀마인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크게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반이슬람 세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슬람을 탄압하는 내용을 수차례 게재해 왔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보기 원치 않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는 다옌 탑(Wild Goose Pagoda) 불상 앞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10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사진출처=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계정

여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 게시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신의 뉴스피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팝업창에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폭력적인 내용이다' 등 삭제 원인을 덧붙여야 한다.

이에 페이스북은 미얀마를 위해 '사회 조화를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질문된 정보입니다' 등 삭제 원인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종교 갈등이 극심한 미얀마인들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게재함에 따라 일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밖에도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전 한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평화를 말해요' 등 의미를 담은 스티커들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Rion's Roar'는 지난 3월 4일 "페이스북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이용되는 페이스북에 일괄적으로 추가 기능을 가동했다"며 "이는 불교계를 중 관용과 자비를 반영한 것"이라 평가했다.

박이름 기자

자원봉사자들 손에서 '티베트 사원' 탄생

美 플로리다 팜비치서... 15년 전 서원 실천

팜 비치 포스트, "큰 변화 가져올 것"

미국 플로리다 남동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티베트 사원을 짓고 있다.

'Palm Beach Post'는 10월 25일 "팜 비치 북쪽에 있는 주피터(Jupiter) 농장에서 일군의 자원봉사자들이 티베트 사원, '팔덴 셰라 팜 링(Palden Sherab Pema Ling)'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엄한 지혜의 연화지"라는 뜻인 '팔덴 셰라 팜 링(Palden Sherab Pema Ling)'은 지난 2010년 열반한 팔덴 셰라 팜 링(Padmasambhava) 불교선사의 제원이 더해져 4만여 평방미터를 구입할 수 있었다.

팜 링은 2000년대 초 팜비치를 방문한 팔덴 셰라 팜 링이 이곳에 사원 건축을 서원한 데서 시작했다. 당시 스님은 "이곳은 사원을 열어야 할 곳"이라며, 매년 팜비치를 찾아 대중 법회를 봉행하며 선군을 심었다.

사원 부지는 팔덴 셰라 팜 링 열반 4년 후인 2014년에 마련됐다. 스님의 법문을 매년 들으며 발심했던 인근 농장주 3명의 도움과 스님의 포교 근거지였던 파드마스바바(Padmasambhava) 불교센터의 제원이 더해져 4만여 평방미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주피터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팀 타비스(Tim Tavis) 박사는 "3명의 농장주가 각각 자신의 땅 일부를 회사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놓아서 사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열반하신 팔덴 셰라 팜 링의 노력이 쌓여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했던 팀 타비스 박사는 12년 전 미국을 여행하던 중 이곳에서 팔덴 셰라 팜 링의 법문을 듣고서 발심했고, 4년 전 은퇴 후 지금까지 팜비치에서 머물며 PBC를 돕고 있다.

팀 타비스에 따르면 농장을 계속해 진행하고 있는 사원 건축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의 노동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계와 건설 장비 운영은 건설 노동자들이 맡고 있지만,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며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일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맡고 있다.

의사인 크리스 로스맨(Chris Rothman) 씨는 "소모품을 관리하며 휴식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튼튼한 대로 이곳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Palm Beach Post'는 "PBC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도움이 더해져 사원이 들어설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존 크리스티안(John Christiansen) 농장주의 말을 인용하고, "주피터 농장에 세워질 팔덴 셰라 팜 링(Palden Sherab Pema Ling)은 규모와는 상관없이 팜비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크리스티안 농장주는 팔덴 셰라 팜 링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 땅 8,000여 평방미터를 희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일본 아이돌 '나무나무 걸즈' 활동 중단

전국적 유명세 치르며 학업, 일선 등 지장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불자 아이돌' 나무나무 걸즈(Num-Num Girls)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나무나무 걸즈는 일본 큐슈지역에 위치한 불교 정토진종립 '나카즈시 히가시큐 슈류타니 고등학교' 여학생들 13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불교 가르침을 노래로 널리 포교하겠다는 취지로 데뷔했다. 지난 8월에는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사찰을 오가며 공연을 펼치는 등 큰 인기를 떨쳤다.

일본 언론 'Japan Today'는 10월 28일 "불교계 아이돌그룹 나무나무걸즈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며 "이유는 너무 높아진 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후 점점 유명해져 활동량이 많아져 학업에 지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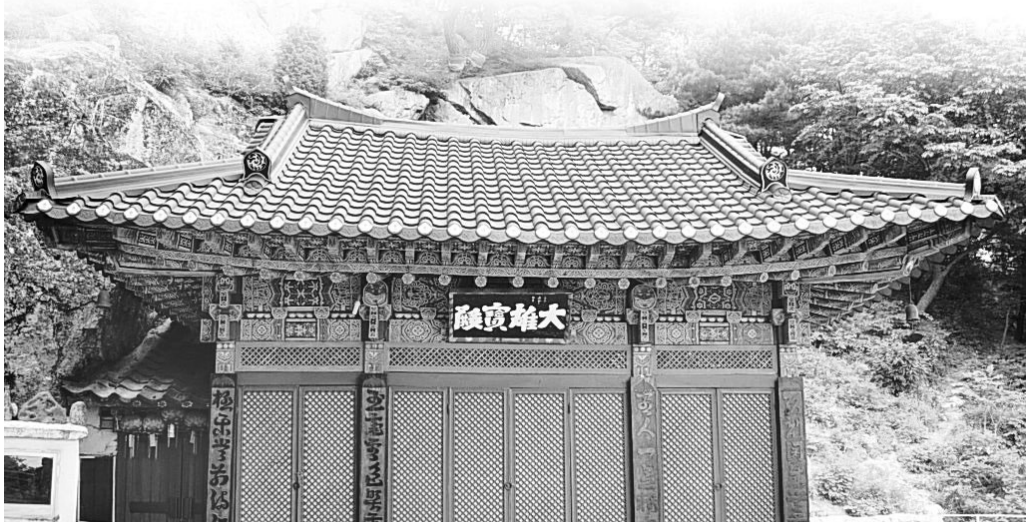
일본 '불자 아이돌' 나무나무 걸즈. 출처 oita-press

는 이유에서다. 또한 '불교계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에 타종교인들의 인신공격성 비난이 속출하며 유명세를 치루기도 했다.

'Japan Today'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의미가 퇴색될까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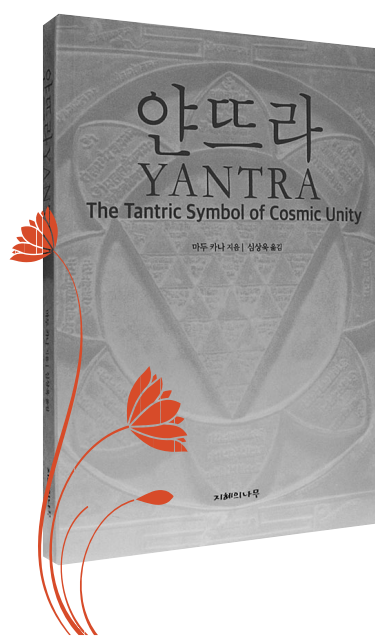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트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 안트라
안트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안트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점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안트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를 회귀하기 위한 명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으로 안트라와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안트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트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안트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안트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